

SOCIAL IMPACT TREND REPORT

# 소셜임팩트 트렌드 리포트

CSR·ESG·임팩트투자

호수: 2026-W23 · 발행: 2026-06-1W

## 이번 호 핵심 트렌드 4

### 임팩트 자본의 무게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한다

이번 주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가장 또렷한 신호는 임팩트 투자의 중심축이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임팩트 투자 전문 매체 임팩트알파는 "임팩트 투자라는 용어는 서구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실천의 미래는 동쪽에서 빛어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 일본에서 홍콩까지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투자자들이 글로벌 임팩트 생태계에서 아시아만의 차별점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차별점은 세 가지로 요약됐다. 인내 자본(patient capital), 세대를 잇는 청지기 정신, 그리고 절제된 혁신이다. 이 흐름에 동력을 더하는 것은 지역의 혁신 기업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끄는 새로운 세대, 이른바 '지금 세대(now generation)'다. 실제로 임팩트알파는 이번 주 브리핑에서 "동쪽으로 가라, 펀드매니저들이여"라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걸었고, 홍콩을 특집으로 다루며 아시아 자본을 좇는 글로벌 펀드매니저들의 움직임을 짚었다. 임팩트 투자의 언어는 서구가 만들었지만, 그 다음 장(章)은 아시아가 쓰고 있다.

한국 시사점 — 임팩트알파가 아시아의 부상을 이야기하며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가장 먼저 호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더 이상 글로벌 임팩트 흐름의 수입국이 아니라, 아시아 임팩트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호명되는 위치에 있다. 인내 자본과 세대를 잇는 청지기 정신, 절제된 혁신이라는 아시아의 차별점은 한국의 사회적 금융과 임팩트 투자가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는 언어다. 서구의 임팩트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기보다, 한국과 아시아의 맥락에 맞는 임팩트 투자의 문법을 제안하는 단계로 나아갈 시점이다. 특히 '지금 세대'라는 키워드는, 한국의 청년 임팩트 창업가와 차세대 자산가·재단이 임팩트 투자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이 한국 임팩트 생태계의 다음 10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한국이 아시아 임팩트 자본의 변방이 될지 거점이 될지를 가른다. 글로벌 흐름을 뒤따르

는 관찰자가 아니라, 아시아 모델의 공동 저자가 되는 전략이 필요하다.

## ESG의 무게중심이 환경(E)에서 거버넌스(G)로 옮겨간다

기업의 ESG 위험 지형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 글로브스캔의 2026년 기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대상 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거버넌스(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환경 문제를 제치고 기업 평판 위험 1순위로 올라섰다. 기업 대외협력 담당자의 45%가 거버넌스를 최대 ESG 평판 위험 영역으로 꼽은 반면, 환경 위험에 대한 우려는 같은 기간 39%에서 27%로 뚜렷이 줄었다. 이는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라, 기업 윤리와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환경 의제를 넘어설 만큼 커졌다는 신호다. 트렐리스(옛 그린비즈)는 이 재편이 "지속가능성을 거버넌스 우수성의 동력으로 재포지셔닝할 기회"라고 해석했다. 기후·탄소가 ESG 담론을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고 책임지는가'라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윤리가 기업 평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환경 성과를 앞세우던 기업들이 이제는 의사결정 구조 그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선 셈이다.

한국 시사점 — ESG의 무게중심이 환경에서 거버넌스로 옮겨가는 흐름은 한국 기업과 임팩트 생태계에 직접적인 함의를 준다. 그동안 한국의 ESG 논의는 탄소중립·친환경 같은 환경 의제에 크게 쏠려 있었고, 지배구조는 상대적으로 형식적 점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이 거버넌스를 최대 평판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이사회 독립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윤리경영, 책임성 같은 지배구조 이슈가 곧 평판과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임팩트 투자와 사회적 금융의 관점에서, 투자 대상의 사회적 성과만이 아니라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책임지는가를 함께 보는 거버넌스 실사가 중요해진다. 환경에서 거버넌스로의 이 전환은 한국 기업이 ESG를 보여주기식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조직 운영의 근본 원칙으로 내재화할 것을 요구한다. 거버넌스는 이제 ESG의 결가지가 아니라 중심이다.

## 불확실성의 시대, 임팩트 투자가 시험받는다 — 유동성과 용기

임팩트 투자가 구조적·정치적 시험대에 동시에 올랐다.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임팩트 투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근본적인 장벽으로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 '유동성'을 지목했다. 임팩트와 수익률 사이의 상충 여부에 논의가 집중되는 동안, 정작 더 중요한 역학은 유동성과 임팩트가 흔히 반비례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울수록 임팩트는 깊

어지지만, 그만큼 투자자는 자금이 묶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80억 달러 규모, 8년에 걸친 토닉의 종단 연구가 이 딜레마를 뒷받침한다. 한편 임팩트알파는 '권위주의 시대의 용기 있는 자본'을 화두로 던졌다. 정치적 후퇴와 권위주의가 확산하는 국면에서, 임팩트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구조적으로는 유동성의 벽, 환경적으로는 정치적 역풍 — 임팩트 자본이 이 두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향후 성장의 관건이다.

한국 시사점 — 유동성과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두 시험은 한국 임팩트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 사회적 금융과 임팩트 펀드 역시 '깊은 임팩트일수록 자금이 오래 묶인다'는 구조적 딜레마를 안고 있고, 이는 임팩트 투자가 일부 선도 기관을 넘어 더 넓은 자본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핵심 이유다. 스탠퍼드의 진단은, 한국에서도 임팩트 투자의 다음 과제가 단순히 '임팩트와 수익의 양립'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묶인 자금이 어떻게 유동성을 설계해 줄 것인가'에 있음을 일깨운다. 임팩트 채권의 유통 시장, 중간 회수 구조, 블렌디드 파이낸스 같은 장치를 어떻게 한국 맥락에 맞게 만들지가 관건이다. 동시에 '용기 있는 자본'이라는 화두는,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임팩트 투자가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한국 현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임팩트 자본의 역할이 더 절실해진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 임팩트가 금융을 넘어 '교육'과 'SDGs 측정'으로 확장된다

소셜 임팩트가 투자라는 영역을 넘어 교육과 측정의 제도로 변지고 있다.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는 '체인지메이커 대학'이라는 화두로, 사회 혁신을 대학 교육에 내재화하려는 글로벌 움직임을 조명했다. 가나의 아셰시 대학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헌신해 온 글로벌 비영리 아쇼카와 그 대학 이니셔티브 '아쇼카 U'가 전 세계 대학에 사회 혁신을 심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팩트가 일부 투자자의 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의 핵심 가치로 자리잡아가는 흐름이다. 측정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싱가포르발 협업 프로젝트 '지속가능 이벤트 목표(Sustainable Event Goals)'는 비즈니스 이벤트가 만들어내는 임팩트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직접 연결하는 틀을 제시했다. 임팩트가 추상적 선의가 아니라, 교육으로 길러지고 국제 표준으로 측정되는 구체적 제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시사점 — 임팩트가 금융을 넘어 교육과 측정으로 확장되는 흐름은, 한국 임팩트 생태계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두 가지 인프라를 가리킨다. 첫째는 교육이다. 체인지메이커 대학 사례처럼, 사회 혁신과 임팩트를 일부 동아리나 특강이 아니라 정규 교육과정에 내재화하는 시도가 한국 대학에도 필요하다. 다음 세대의 임팩트 창업가와 투자자는 교육에서 길러지

기 때문이다. 둘째는 측정이다. 비즈니스 이벤트의 임팩트를 SDGs에 연결하는 싱가포르의 시도처럼, 한국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국제 표준으로 측정·보고하는 역량이 임팩트 조직의 핵심 경쟁력이 된다. 측정되지 않는 임팩트는 투자받기도, 확산되기도 어렵다. 임팩트를 교육으로 기르고 표준으로 증명하는 두 축을 함께 세울 때, 한국의 사회 혁신은 선의의 영역을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는다.

## 현장 들여다보기

### 복지·후원·식권을 하나로 — 나눔비타민과 사회적 핀테크의 부상

이번 호 한국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호는 '사회적 핀테크'의 부상이다. 나눔비타민은 복지 예산과 후원금, 식권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핀테크 서비스로, 임팩트 투자·액셀러레이팅 전문 기관 MYS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사업을 확장한다. 그동안 복지 예산, 민간 후원금, 식권 같은 자원은 서로 다른 주체가 따로 운영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기까지 새고 끊기는 구간이 많았다. 나눔비타민은 이 흩어진 흐름을 하나의 디지털 인프라로 통합해, 자원이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수혜자에게 가닿도록 설계한다. 주목할 점은 이 회사에 투자한 MYSC가 한국을 대표하는 임팩트 투자·액셀러레이터라는 사실이다. 사회 문제를 기술로 푸는 스타트업과 그 가능성에 인내 자본을 대는 임팩트 투자기관의 결합이, 복지 전달 체계라는 공공의 빈틈을 메우는 구체적 사례로 작동하고 있다. 임팩트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일상의 인프라에서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국 시사점 — 나눔비타민과 MYSC의 결합은 한국 임팩트 생태계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사회 문제를 기술로 풀려는 스타트업과, 그 가능성에 인내 자본을 대는 임팩트 투자기관이 만나 사회적 가치와 사업성을 동시에 키우는 구조다. 특히 복지·후원·식권처럼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자원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영역은, 한국 사회가 가진 촘촘한 복지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보급률이 만나 임팩트가 크게 발휘될 수 있는 지점이다. 공공이 미처 채우지 못한 전달 체계의 빈틈을 임팩트 핀테크가 메우는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이는 앞서 살펴본 '아시아 임팩트 자본의 부상'이라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복지가 두텁고 디지털 전환이 빠른 한국은, 이런 사회적 핀테크가 실제 임팩트와 사업성을 동시에 입증하기에 유리한 토양을 가진 시장이다. 사회적 핀테크는 한국 임팩트 투자의 가장 유망한 축 가운데 하나로, 지속해서 관찰할 가치가 있다.

## 기술·상생·ESG 삼박자 — 케이뱅크의 실험

또 다른 한국 현장 신호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다. 케이뱅크는 기술과 상생, 그리고 ESG라는 세 박자를 결합해 인터넷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디지털 금융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경쟁력의 한 축으로 끌어안았다는 점에서, 임팩트가 주류 금융 안으로 들어온 한국적 장면으로 읽힌다. 빠른 기술 혁신만으로 경쟁하던 인터넷은행이, 이제는 협력사·고객과의 상생과 ESG 경영을 경쟁력의 한 축으로 함께 내세운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국 금융권의 실험으로 읽힌다. 비용 절감과 속도만을 무기로 삼던 디지털 금융이,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갖추야 지속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당시 '메기 효과'로 금융 경쟁을 흔들었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차별화 무기로 사회적 책임을 꺼내 든 셈이다. 앞서 살펴본 'ESG의 무게중심이 거버넌스로 이동하는' 흐름이, 한국 금융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 시사점 — 케이뱅크의 '기술·상생·ESG 삼박자'는, 임팩트와 ESG가 더 이상 사회적 기업만의 의제가 아니라 주류 금융의 경쟁력 요소로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앞서 짚은 '거버넌스 중심 ESG' 흐름과 맞물려, 금융기관이 기술 경쟁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평판과 신뢰의 핵심이 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규제나 외부 압력이 아니라 '경쟁력'이라는 동기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상생과 ESG가 비용이 아니라 차별화의 무기가 될 때, 그 변화는 비로소 지속가능해진다. 규제 대응이나 홍보 차원의 ESG는 쉽게 형식에 그치지만, 경쟁력의 동기에서 출발한 ESG는 조직 운영에 깊이 뿌리내리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사례는 임팩트와 ESG가 한국 산업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금융을 넘어 다른 산업으로도 변질 흐름이다.

## 편집장의 글

### ① 임팩트의 미래가 동쪽에서 쓰이고 있다

이번 주 소셜 임팩트 신호를 관통하는 가장 큰 흐름은, 임팩트 투자의 무게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팩트알파의 진단은 명료했다. 임팩트 투자라는 용어는 서구가 만들었지만, 그 실천의 미래는 동쪽에서 빛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한국, 일본과 홍콩

의 투자자들이 인내 자본과 세대를 잇는 청지기 정신, 절제된 혁신이라는 아시아만의 차별점을 정의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지역의 혁신 기업과 자본을 이끄는 '지금 세대'가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서사에서 한국이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호명된다는 사실이다. 임팩트알파가 아시아의 부상을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떠올린 시장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었다. 동시에 한국 현장에서도 같은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 나눔비타민과 MYSC가 보여준 사회적 핀테크, 케이뱅크가 내건 기술·상생·ESG의 결합은, 임팩트가 한국에서도 일부 사회적 기업의 일을 넘어 금융과 기술의 주류로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팩트의 다음 장을 서구가 받아쓰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아시아가 공동 저자가 될 것인가. 이번 주 신호는 그 선택의 시간이 이미 왔음을 또렷이 보여준다. 한국 임팩트 생태계가 글로벌 흐름의 수입국에서 아시아 모델의 제안자로 도약할 기회가, 바로 지금 열려 있다.

## ② 임팩트가 시험받는 시대, 무엇으로 답할 것인가

동시에 이번 호는 소셜 임팩트가 거대한 시험대 위에 있음을 보여줬다. ESG의 무게중심은 환경에서 거버넌스로 옮겨가, 이제 '무엇을 하는가'만큼 '어떻게 결정하고 책임지는가'가 기업 평판을 가른다. 임팩트 투자는 유동성이라는 구조적 벽과 권위주의 확산이라는 정치적 역풍 앞에서, 묵인 자금을 어떻게 풀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담대해질 것인가를 시험받고 있다. 그리고 임팩트는 교육과 측정이라는 제도로 번지며,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내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했다. 이 모든 시험이 던지는 공통의 물음은 하나다. 임팩트는 선의의 구호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구조와 제도로 단단해질 것인가. 소셜 임팩트 분야에서 한국은 글로벌 흐름을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남짓의 시차로 뒤따르는 구간에 있다. 거버넌스 중심의 ESG, 유동성 설계, 임팩트 교육과 SDGs 측정이라는 이번 주 화두는 머지않아 한국 시장에도 닿을 흐름이다. 한국 임팩트 생태계가 던져야 할 답도 분명하다. 임팩트를 감동적인 이야기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버넌스와 유동성과 측정이라는 단단한 인프라로 뒷받침하는 것. 시험받는 시대일수록, 임팩트의 진짜 실력은 구조에서 드러난다.

*Generated 2026-W23 — SOCIAL IMPACT TREND REPORT*

본 리포트는 그린임팩트([www.greenimpact.kr](http://www.greenimpact.kr))에서 내부용으로 작성했습니다